

행위단서인 매체에서 암관련 정보추구 유무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홍 석 민¹

¹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The Effects of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From Media as Communication Cues on Health Behavior

Hong, Seokmin¹

¹ College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주요어

건강행위, 미디어, 행위단서

Key words

Health behavior, Media,
Communication cues

Correspondence

Hong, Seokmin
College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1, Hallymda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1927
Fax: 82-33-248-1706
E-mail: seokminhong@hallym.ac.kr

투 고 일: 2012년 11월 13일
수 정 일: 2012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8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information searches from media as communication cues for health behavior, specifically smoking, drinking liquor, cancer examinations, and regular exercis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with a sample size of 600 and analyzed using SPSS 18.0.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spaper as a communication cue has an effect on health behavior such as regular exercise and smoking, whereas television only affects regular exercis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edia as communication cues to improve health behavior and that messages related to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exposed with cautious consideration to media choice so as to increase the effects of message.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sugges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중앙암등록본부는 우리나라 현재 국내 암환자가 80만 명 시대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수는 19만 2561명으로 2008년 18만 465명과 비교하여 6.7%, 1999년 10만 1032명에 비해 9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9년말 까지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총 808,503명으로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8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자가 증가한 만큼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2005년에서 2009년 발생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2%로 나타나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의 암환자의 5년 생존율 57.1% 대비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조기검진과 발달된 의학기술일 것이다. 언급된 이유외에 생활습관의 변화로도 암 질환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Roper, 1993)나 건강과 관련한 인지와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Bryan, Hutchinson, Seals, & Allen, 2007)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고, 현재 국내 주요일간지와 TV방송매체마다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기사형식으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혹은 헬스와 관련된 기관들이 암과 관련된 정보를 공중들에게 알리고자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노출에 노력하고 있다. 공중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공중의 건강과 관련한 행위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암 질환과 관련하여 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체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히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실천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국가원동력으로 보고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2). 개인적 차원에서도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요구된다.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추구를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고 있다. 또한 최근에 두드러지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건강수준이 저하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암질환의 발생은 건강수명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증가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건강증진 활성화를 통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추구매체에 따라 건강행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로중 하나는 매체 자체가 지닌 특성의 차이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자체가 보유한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건강행위를 하는데 있어 정보의 추구에 따른 편익이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매체로 알려진 신문, 잡지에서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과 수동적인 매체인 TV에서 추구하는 사람과는 정보의 질과 관여도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많은 건강행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을 토대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행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높은 유용성을 보여 주었다(Mok, Yeung, & Chan, 2006). HBM을 심리학적 이론 틀로 실행되어 왔던 과거의 연구들은 HBM 내의 핵심적 신념과 개인의 예방행동의 관계성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된 중요한 요인인 행위단서가 어떻게 개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과거의 의사나 간호사 등 의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점차 벗어나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건강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매체를 통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과 관련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HBM에서 설명하는 외적행위단서인 매체에 관련한 연구는 크게 대인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뉜다. 첫째,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주는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로 Talosig-Garcia와 Davis (2005)는 히스패닉과 흑인 38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서베이를 통해 소수인종의 암환자 정보행동추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여 암으로 진단받고 정보를 추구하는 매체가 의사, 간호사(29.9%), 책(18.6%)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전통매체인 TV(4.1%), 신문(3.1%)은 주매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암으로 진단받은 후 국가암센터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인터넷의 이용도는 극히 미미하였다. 흥미롭게도 Kelly, Strum, Kemp, Holland와 Ferketich (2009)의 인종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흑인들은 암과 관련한 정보추구를 교회의 목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다른 인종과 비교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종 간에 암정보추구와 관련한 미디어 이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또한 암관련 정보를 추구함에 있어 가족과 친구의 영향이 건강행동추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종합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결과는 외적행위단서로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언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외적행위단서 중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암과 관련한 미디어 노출효과 연구들은 대부분 광고캠페인(Broadwater, Heins, Hoelscher, Mangone, & Rozanas, 2004; Vanderpool & Coyne, 2006)이나 미디어 커버리지(Niederdeppe et al, 2007; Pierce & Gilpin, 2001)에 집중되어 있다.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암과 관련한 뉴스를 의사나 환자 모두 주요한 정보원천으로 여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Niederdeppe et al, 2007)나 미디어에서 표출되는 건강정보와 건강에 대한 행동요인사이에 암과 관련한 정보의 추구(information seeking)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먼저 매체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rkin과 Wallack (1990)은 매체분류를 통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매체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적극적” 미디어로 분류하였고, 건강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소극적” 미디어로 TV와 라디오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암검진

행동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했다. Cho, Kim, Lee와 Chung (2004)의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한 한국인 건강관련 행동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건강신념구성 변수 중 행위단서는 건강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타인을 통한 간접 경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체의 건강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Gene, Espinola, Cabezas와 Boix (1992)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 연구결과 대중매체가 예방집중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Dutta-Bergman (2004)은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주요한 매체사용이 건강과 관련하여 어떻게 건강태도, 건강인지,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신문과 인터넷과 같은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건강에 강한 신념을 가진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건강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주요한 매체임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TV와 라디오는 건강추구성향이 낮은 개인들의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 패널을 이루는 주요 대상자가 백인에 치중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의 한계는 존재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강신념모델은 행위단서에 주목하여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지만 행위단서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또한 Rosenstock (1974)의 초기 연구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은 행위단서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임을 주목해 왔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매체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정보추구매체로 분류되어 진다(Chaiken & Eagly, 1983; Robinson & Levy, 1996). 헬스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예를 들어 Dutta-Bergman, 2004)은 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보 중심적(information oriented) 속성을 지닌 신문은 공중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건강강화효과를 보여 준다는 연구(Atkin & Wallack, 1990)도 있다. 또한 신문은 건강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지면을 활용하고 의학 잡지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utta-Bergman, 2004).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문을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보고 있다. 매체의 속성상 신문지면에 소개되는 다양한 기사와 정보는 믿을 만하다는 신념이 바탕에 있다. 건강에 관한 정보추구에 있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신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의 신뢰도로 인해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믿는 경향이 높다. 또한 신문을 능동적 매체로 보는 경향성도 있다. 즉 신문 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참여도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신문 매체가 가진 다른 장점

은 정보의 보관성이다. 즉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과 회독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 보면 신문매체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추구한 사람들은 건강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TV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TV 매체의 일반적인 속성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TV는 수동적 매체로 알려져 있으며 신문, 잡지와 같은 지면매체(print media)와 비교해 지적 관여도나 인지적 노력이 덜 필요로 하는 매체로 특정 지워진다(Chaiken & Eagly, 1983; Vivian, 2002). 과거의 연구들은 TV 매체가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유해행위와 연결된 위험성을 경시하여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Kreps & Thornton, 1992). 또한 이러한 유해행위를 TV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사회적 유행 혹은 개인적 철학의 문제로 귀결하고 있다. 또한 TV 매체가 가지는 속성상 건강정보에 대한 수명이 짧아 정보에 대한 처리과정 자체가 소극적이어서 건강행위를 유발하기가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인터넷은 매체분류에 있어 약간 혼재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 이유는 질병에 관한 정보나 기타 의학상식의 보관성에는 장점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오락적인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암환자의 약 45%-51%가 암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고 보고한 연구를 살펴본다면 오락성보다는 정보 추구적 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Talosis-Garcia & Davis, 2005).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들을 기타변수로 설정하였다. 기타변수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설정하였다. Umberson (1987)은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이 성별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성역할의 사회화과정에서 남성은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도록 사회화가 진행되며, 반대로 여성은 이를 회피하도록 사회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화과정은 성역할에도 변화를 주어 건강행위나 건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건강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적으로 연령이 높은 층은 젊은 연령대에 비해 정보를 덜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져 왔다(Rutten, Squiers, & Hesse, 2006). 또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정보와 건강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 유일한 정보원천으로 의사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Turk-Charles, Meyerowitz, & Gatz, 1997).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더욱 많은 정보를 추구할 경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Turk-Charles et al, 1997).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에 대한 정보획득이 높아 건강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쉽게 판단된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득수준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Rutten et al, 2006)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압과 관련한 정보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적 요인으로 주관적인 건강상태 그리고 의료서비스이용이 설정되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이용이나 건강행위의 기대효과가 낮기 때문에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반대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이나 병원의 이용에서 적극적인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건강행위 실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여 기타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건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단서 가운데 건강관련 정보를 다루는 외적 단서인 대중매체에 따라 공중의 건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보건서비스분야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개인들의 생활양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건강증진의 개념은 환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간호사에게 특히 중요하다. 건강증진을 통해 개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는 그 역할의 중심에 있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을 보유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contact point)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압과 관련한 의학지식을 보유함에 따른 개인 혹은 환자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단이기도 하다. 즉 간호사들이 환자가 보유한 질병에 관한 전문성과 환자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건정책에 변화를 생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접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태도변화를 유도하거나 국민들의 의학적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있다. 당연히 효과적인 헬스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간호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행위에 관한 태도 유발을 이

끌어 낼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하여 올바른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단서로서 매체선택을 통해 압과 관련한 정보추구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각 매체별 압과 관련한 정보의 추구유무가 건강행위와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 셋째, 고관여 매체인 신문과 저관여 매체인 TV의 건강행위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본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커뮤니케이션 단서로서의 각 매체별 정보추구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 동안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서베이를 실시하기에 앞서 질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 졌다.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대한 난이도 및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사는 한 서베이 전문연구조사기관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설문내용은 주로 각 매체별로 압 관련 정보를 추구하였는지의 여부와 건강행위에 관련한 변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총 600명이 참여하였다. 실제조사를 담당한 조사기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 패널을 모집하였다. 서베이를 위해 먼저 연령을 20세부터 60세 이하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선정된 패널들에게 먼저 설문조사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600명의 데이터를 최종 확인한 결과 불성실한 답변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은 없어서 최종적으로 600명 모두 표본으로 설정되었다. 600명을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인의 중복응답과 대리응답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설문지 종료 후에 다시 접속하여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고 데이터의 중복확인을 통해 데이터의 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거 후 분석 작업을 통해 중복된 응답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대리응답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응답자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chi-square분석을 실시하였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용어 정의 및 연구도구

1) 건강행위

Gochman (1997)은 건강행위를 건강 유지, 건강 회복, 건강 향상과 활동 및 습관으로 정의하였다. Millstein, Petersen과 Nightingale (1993)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건강행위를 파악하여 건강촉진, 건강보호, 건강 위협 행위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건강행위는 주로 운동, 기호식품(흡연, 음주)의 절제, 의료기관에 대한 순응 등 개별적인 행위를 단독적으로 측정하는 방법(Umberson, 1987)과 이러한 건강행위를 종합한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중 다차원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 건강행위에 대한 대상자의 전체적인 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각각의 건강행위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건강행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건강행위로 1) 암 검진여부, 2) 흡연여부, 3) 음주여부, 4) 정기적인 운동여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암 검진여부와 정기적 운동여부는 질병예방적인 차원이고, 흡연과 음주는 유해행위 억제차원에 해당된다. 4가지 건강행위들은 모두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2) 외적행위단서

Mattson (1999)의 정의에 의하면 행위단서는 개인의 적절한 건강행동을 촉발하는데 필수적인 특정한 자극을 말하며 다시 행위단서는 내적행위단서와 외적행위단서로 나뉜다. 내적 단서는 개인이 가지는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및 증상을 의미하며 외적 자극은 외부로부터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외적자극은 다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외적 자극 중 매체를 통한 단서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외적 자극 중 매체에 관해 최근 6개월 동안 암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 본 단서를 신문, 잡지, TV, 인터넷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각각의 매체에서 정보를 찾아보았으면 1, 찾아보지 않았으면 0을 부여하였다.

3) 기타변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기능적 요인으로 기타변인을 나누어 구분하였다. 가구 월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직장에서 받는 월평균 소득 또는 수입(납세 전)으로 질문하였고 100만원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 이상-700미만, 7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1=아주 나쁨, 5=아주 좋음).

4)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로 설정된 4개 항목의 건강행위 각각에 독립변수와 기타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logistic)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분석

1) 기초 조사 및 기술통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비율이 50.8%와 49.2%로 비교적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연령은 20세부터 59세까지로 4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연령의 평균은 38.4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졸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월 가구 소득은 100 만 원대에서 400 만 원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평균은 중간(mean=3.12)을 보여주었다 (Table 1).

2) 분석대상자의 건강행위분포

본 연구의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건강행위 분포는 각 매체별로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질병예방에 관해 살펴보면, 암 검진은 전체 조사 대상자중 54.7%가 실시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정기적 운동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기적 운동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유해행위 억제 행위를 묻는 질문에 흡연(27.5%)과 음주(98.8%)를 한다고 응답하여 음주행위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암 검진과 관련한 정보원천으로의 인터넷사용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기적인 운동여부와 관련해서 인터넷 사용유무를 변인으로 하여 chi-square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chi^2=5.57, p<.01$). 다만 흥미롭게도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추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정기적인 운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천으로의 신문이용여부와 정기적 운동여부($\chi^2=23.89, p<.01$)에 대한 chi-square분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암검진행위($\chi^2=5.05, p<.01$)에도 유의미하였다. 건강과 관련한 정보추구를 이용하는 모든 매체와 유해행위억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60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Mean±SD
Gender	Male	305	50.8	
	Female	295	49.2	
Age (yr)	20-29	151	25.2	38.3±10.4
	30-39	164	27.3	
	40-49	166	27.7	
	50-59	119	19.3	
Education	Elementary	1	0.1	
	Middle school	5	0.8	
	High school	210	35.0	
	University	337	56.2	
	Graduate school	47	7.8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100	46	7.7	
	100- <200	119	19.8	
	200- <300	117	19.5	
	300- <400	61	10.2	
	400- <500	36	6.0	
	500- <600	19	3.2	
	600- <700 700 or more	7 14	1.2 2.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poor	0	0	3.12±0.69
	Poor	93	15.5	
	Average	359	59.8	
	Good	130	21.7	
	Very good	18	3.0	

Table 2. Chi-square Matrix of Health Behavior on Communication Cues

Variables	Communication cue			p
	n	Use	No use	
Internet				
Cancer examine	328	82 (25.0%)	246 (75.0%)	.681
Regular exercise	448	104 (23.2%)	344 (76.8%)	.018
Smoking	165	38 (23.0%)	127 (77.0%)	.363
Using alcohol	593	153 (25.8%)	440 (74.2%)	.488
TV				
Cancer examine	328	168 (51.2%)	160 (48.8%)	.170
Regular exercise	448	192 (42.9%)	256 (57.1%)	<.001
Smoking	165	85 (51.5%)	80 (48.5%)	.411
Using alcohol	593	287 (48.4%)	306 (51.6%)	.274
Magazine				
Cancer examine	328	236 (72.0%)	92 (28.0%)	.050
Regular exercise	448	298 (66.5%)	150 (33.5%)	.049
Smoking	165	112 (67.9%)	53 (32.1%)	.798
Using alcohol	593	407 (68.6%)	186 (31.4%)	.874
Newspaper				
Cancer examine	328	225 (68.6%)	103 (31.4%)	.025
Regular exercise	448	339 (75.7%)	109 (24.3%)	.002
Smoking	165	119 (72.1%)	46 (27.9%)	.943
Using alcohol	593	431 (72.7%)	162 (27.3%)	.080

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건강잡지를 이용한 정보추구와 질병예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잡지를 통해 정보

를 추구하는 집단이 질병예방과 관련한 변인 즉 암 정기검진 ($\chi^2=3.63, p<.01$)과 정기적인 운동($\chi^2=3.79, p<.01$)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V를 통한 건강정보추구와 질병예방 측면에서의 변수간의 chi-square분석결과 정기적인 운동여부($\chi^2=9.8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흥미롭게도 TV를 커뮤니케이션 단서로 정보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이 추구하는 집단보다 정기적인 운동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유해행위억제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운동은 인터넷, 신문, TV매체, 그리고 건강잡지를 통해 더욱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TV 매체에 관해서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유해행위 억제에 대해서는 모든 매체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본 연구의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립변수는 인구특성,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변인, 매체이용유무로 하였고, 종속변수로 암검진, 정기적인 운동여부, 흡연, 음주행위를 측정하였다.

Table 3과 Table 4는 건강행위(질병예방, 유해행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요인, 건강관련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매체요인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 모형은 암검진 $\chi^2=109.59$, 정기적 운동 $\chi^2=109.59$, 흡연 $\chi^2=94.67$, 음주 $\chi^2=14.25$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 분석결과, 종속변인인 암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p<.01$), 신문($p<.01$)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운동에 관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p<.01$), 의료기관이용($p<.01$),

신문($p<.01$), TV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음주행위에 관해서는 성별($p<.01$), 나이($p<.01$), 주관적 건강상태($p<.01$), 그리고 의료기관이용($p<.01$)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흡연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병예방에 관련하여 건강행위는 암 검진과 정기적인 운동 여부로 측정되었다. 암 검진에 관해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신문매체를 통해 암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수록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운동변인에 관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의료기관이용이 많을수록, 신문매체와 TV매체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아볼수록 확률이 높았다. 음주행위에 여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이용은 정기적인 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오즈비가 1.91, 의료서비스의 이용 오즈비가 2.09이므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신문을 통해 건강관련 뉴스를 찾아본 응답자가 정기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종속변수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기적인 운동을 할 확률이 2.13배 정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한 응답자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운동을 할 확률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운동에도 더 참여하는 것

Table 3.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

(N=600)

Variables	Categories	Cancer examine					Regular exercise				
		B	SE	Wald	ρ	OR (95% CI)	B	SE	Wald	ρ	OR (95% CI)
Gender	Male					1					1
	Female	-1.91	0.26	3.89	.243	0.15 (0.65-1.23)	-0.18	0.25	2.29	.131	0.83 (0.40-1.26)
Age		-0.08	0.01	20.05	.000	1.10 (1.08-1.12)	0.02	0.01	1.54	.223	1.02 (0.63-1.44)
Health condition		0.01	0.18	0.32	.571	0.90 (0.69-1.23)	0.65	0.20	13.34	<.001	1.91 (1.29-2.37)
Medical service	No					1					1
	Yes	-0.14	0.27	0.40	.527	0.87 (0.73-1.84)	0.74	0.32	9.17	<.001	2.09 (1.45-2.60)
Income	<3 million won					1					1
	3 million won or more	-0.41	0.30	1.36	.244	0.66 (0.56-1.85)	0.46	0.38	0.04	.906	1.59 (0.69-2.27)
Education	High school (<University					1					1
	\geq University	-0.03	0.23	0.25	.617	0.97 (0.61-1.34)	-0.01	0.24	0.06	.806	0.99 (0.71-1.56)
Newspaper	No					1					1
	Yes	0.79	0.29	25.39	<.001	0.61 (0.40-.86)	0.83	0.25	10.53	<.001	2.28 (1.33-3.15)
TV	No					1					1
	Yes	-0.30	0.23	1.66	.198	0.74 (0.54-1.44)	0.76	0.25	13.34	.001	2.13 (1.32-3.2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 (Continued)

(N=600)

Variables	Categories	Drinking					Smoking				
		B	SE	Wald	p	OR (95% CI)	B	SE	Wald	p	OR (95% CI)
Gender	Male					1					1
	Female	-2.31	0.31	15.23	<.001	0.65 (0.40-0.86)	1.74	0.30	1.62	.283	0.82 (0.41-2.26)
Age		-0.03	0.01	8.05	.031	0.97 (0.72-0.99)	-0.05	0.05	1.26	.266	0.95 (0.83-1.21)
Health condition		-0.68	0.18	6.67	<.001	0.90 (0.78-0.96)	0.61	0.65	1.29	.584	1.06 (1.01-1.19)
Medical service	No					1					1
	Yes	-0.60	0.29	3.40	.046	0.55 (0.15-0.95)	-0.54	1.01	2.54	.429	0.59 (0.35-1.60)
Income	<3 million won					1					1
	3 million won or more	-0.10	0.31	1.02	.314	0.91 (0.41-2.30)	-1.35	0.91	0.04	.362	0.26 (0.02-1.19)
Education	High school <					1					1
	≥University	-0.43	0.24	1.30	.254	0.65 (0.42-2.34)	-1.96	1.17	2.58	.108	0.95 (0.42-1.03)
Newspaper	No					1					1
	Yes	-0.27	0.24	0.89	.345	0.82 (0.63-3.86)	1.35	0.05	3.24	.072	0.96 (0.75-1.25)
TV	No					1					1
	Yes	-0.20	0.26	1.12	.290	0.74 (0.54-1.44)	-2.70	0.24	1.23	.726	0.27 (0.01-2.21)

로 파악된다.

사회경제적요인도 건강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건강유해인자인 담배와 알코올의 이용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흡연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흡연가능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체관련변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과 TV 모두 질병 예방적 행위에 관련하여 정기적 운동행위의 경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 검진의 경우 신문매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유해행위억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3, Table 4).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매체의 본질적 속성과 결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 중심적(information oriented)속성을 지닌 신문은 공중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건강강화효과를 보여 준다는 연구(Atkin & Wallack, 1990)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신문이 주는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건강강화효과를 통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스스로 정기적 운동과 압검진을 통해 예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TV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TV 매체의 일반적인 속성상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건강관련 이슈에 관해 TV를 통한 학습은 목적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우연(serendipitous)적 학습의 결과로 보는 연구에 기대어 살펴보면 TV시청시간 동안 건강정보에 관한 우연한 조우(bumping into information)일 뿐이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거나 행위로 변

환되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연구결과 대중매체를 통해 압과 관련한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가 질병예방적인 행위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해행위를 억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즉 소극적인 예방조치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현재의 행위를 중지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매체가 지닌 일반적인 속성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는 정보추구기능과 오락기능을 추구하는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매체를 통한 개인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의한 분류인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추구하고자 동기화되고,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소비에 동기화될 수 있다. 다만 대중매체의 속성상 건강정보의 노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원하는 효과에 도달하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케팅 원리에 기대어 살펴보면, 건강행위라는 고관여적인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정보처리과정이 인지에서 감성으로, 그리고 다시 감성에서 행동적인 변화라는 계단적 선행관계라고 한다면 건강행위라는 최종적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유해행위에 관한 행동적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압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또 다른 매체의 분류는 수동적 혹은 능동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한다. 능동적인 매체에는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작용하며, 이와는 반대로 수동적인 매체는 정보전달에 있어 적극적이

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매체에서 보다는 능동적인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는 메시지의 수용자특성과 연결되어 질 수 있다.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체와의 차이는 존재한다. 능동적인 매체(예를 들어, 신문, 잡지)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능동적인 매체는 수용자들의 정보처리과정에서 높은 관여도(involve-ment)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건강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그 매체를 주요한 정보채널로 인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동적인 매체를 통해 건강정보를 찾아 본 사람들은 낮은 관여도로 인해 직접적인 행위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추측이다.

결과부분에서 기술했듯이 질병 예방적 측면에서 암 검진은 전체 조사 대상자중 54.7%가 실시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정기적 운동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기적 운동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암 검진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 40세 이상의 가입자)과 무료 암검진(생애전환기 암검진, 만 66세이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무료 암검진이 만 66세 이상이라는 하지만 암검진에 관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 공중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른 밴드웨곤효과(bandwagon effect)로 볼 수 있다. 유해행위 억제 행위를 묻는 질문에 흡연(27.5%)과 음주(98.8%)를 한다고 응답하여 음주행위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 조치로서의 정기적인 운동여부에 고관여 매체인 신문과 저관여 매체인 TV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관련 캠페인의 성공적인 예방적 조치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위해서 다양한 매체채널을 통한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일한 메시지를 한쪽 매체에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략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일관된 건강관련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더 명확한 분석을 위해 부차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고 건강관련 캠페인전략 목표가 인지에서 출발하여 행동적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매체별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신문구독자와 TV프로그램의 일반시청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지식에 대한 주요 고객인 표적청중(target audience)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신문매체를 통해 건강정보를 추구한 사람들에게 질병 예방적 메시지의 노출(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의 권유)과 건강유해행위인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관련정보를 신문의 건강관련지면(health section)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또한 홍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자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매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간호와 관련한 정책의 변화는 복잡하여 유기적인 연결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체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제안만으로도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된 매체의 지식은 어느 특정한 암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정에 특정 목표청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의 운용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과 같은 매체의 경우에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명확한 목표청중이 있고, TV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각 신문의 표적청중에 맞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수준이 2010년 기준으로 20조에 달해 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 의료비로 1조 6천억, 간병비와 교통비, 보완대체요법비용으로 7천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2). 또한 암의 진단 및 치료에 따른 입원, 직업상실 등으로 발생한 생산성 손실금, 조기 사망으로 7조 4천억 원의 생산성 손실금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암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정책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암 발병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활습관을 바꿔 흡연, 음주와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그에 따른 편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행위단위로 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적재적소의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서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으며 위에 언급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또한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간략하게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단서로의 매체와 건강행위의 Chi-square분석 결과 오직 정기적인 운동에 관해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고관여 매체와 저관여 매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관여 매체인 잡지와 신문에서 정기적인 운동여부외에 암검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건강행위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암검진에 관해서는 나이와 신문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적인 운동에 있어서는 병원이용, 신문, TV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해행위억제 행위변수인 음주에 관해서는 성에 따라, 주관적인 건강인식에 따라, 그리고 병원이용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흡연에 관해서는 어떠한 변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행위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독립변인으로 미디어와 관련한 정보추구만을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다루어 왔던 개인의 심리적 요인(예를 들어, 효능감 혹은 만족도)과 사회 자본등과 같은 주요 변인들을 다루지 못한 것이다. 둘째, 웹을 이용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서베이에 참여한 대상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외적타당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참여한 설문대상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동기적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후연구에는 웹을 통한 데이터와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은 추후 연구나 다른 연구자가 보완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Atkin, C., & Wallack, L. (1990). *Mass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Complexities and conflicts*. Newbury Park, CA: Sage.
- Broadwater, C., Heins, J., Hoelscher, C., Mangone, A., & Rozanas, C. (2004). Skin and colon cancer media campaigns in Utah. *Preventing Chronic Disease, 1*(4), A18.
- Bryan, A., Hutchison, K. E., Seals, D. R., & Allen, D. L. (2007). A trans-disciplinary model integrating genetic,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voluntary exercise. *Health psychology, 26*, 30-39. <http://dx.doi.org/10.1037/0278-6133.26.1.30>
- Chaiken, S., & Eagly, A. (1983). Communication modality as determinant of persuasion: The role of communicator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241-256. <http://dx.doi.org/10.1037/0022-3514.45.2.241>
- Cho, H. S., Kim, C. B., Lee, H. W., & Chung, H. J. (2004). A meta-analysis of health related behavior study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in Korea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69-84.
- Dutta-Bergman, M. (2004). A descriptive narrative of health eating: A social marketing approach using psychographics in conjunction with interpersonal, community, mass media and new media activities. *Health Marketing Quarterly, 20*, 81-101. http://dx.doi.org/10.1300/J026v20n03_06
- Gene, J., Espinola, A., Cabezas, C., & Boix, C. (1992). Do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influenza and its immunization affect the likelihood of obtaining immunization?. *Family Practice Research Journal, 12*(1), 61-73.
- Gochman, D. S. (1997). Health behavior research: Definitions and diversity. In D. S. Gochman (Ed.), *Handbook of health behavior research, Vol. 1. Personal and social determinants*. New York, NY: Plenum Press.
- Griffin, R. J., Dunwoody, S., & New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 230-245.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 1-47.
- Jones, K. O., Denham, B. E., & Springston, J. K. (2006). Effects of ma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breast cancer screening: Advancing agenda-setting theory in health context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4*, 94-113.
- Kelly, K. M., Sturm, A. C., Kemp, K., Holland, J., & Ferketich, A. K. (2009). How can we reach them? Information seeking and preferences for a cancer family history campaign in underserved communiti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4*, 573-589. <http://dx.doi.org/10.1080/10810730903089580>
- Kreps, G. I., & Thornton, B. C. (1992). *Health communication theory & practice*.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 Mattson, M., (1999).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cation cues to action in the health belief model: HIV test counseling. *Communication Monographs, 66*, 240-265. <http://dx.doi.org/10.1080/03637759909376476>
- Millstein, S. G., Petersen, A. C., & Nightingale, E. O. (1993). *Promoting the health of adolescents: New direc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k, E., Yeung, S. H., & Chan, M. F. (2006). Prevalence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correlates of intention to be vaccinated among Hong Kong Chinese. *Public Health Nursing, 23*, 506-515. <http://dx.doi.org/10.1111/j.1525-1446.2006.00590.x>

-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2). *Cancer statistics*. Retrieved November 20, from <http://www.cancer.gov/ncic/index.html>
- Niederdeppe, J., Hornik, R., Kelly, B., Frosch, D., Romantan, A., Stevens, R., et al. (2007). Exploring the dimensions of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and scanning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22*, 153-167. <http://dx.doi.org/10.1080/10810730.2010.514034>
- Pierce, J. P., & Gilpin, E. A. (2001). News media coverage of smoking and health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population rates of smoking cessation but not initiation. *Tobacco Control, 10*, 145-153.
- Robinson, J. P., & Levy, M. R. (1996). *The main source: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Beverly Hills, CA: Sage.
- Roper, W. L. (1993). Health communication takes on new dimensions at CDC. *Public Health Report, 108*(2), 179-183.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Quarterly, 2*, 354-386.
- Rutten, L. J., Squiers, L., & Hesse, B. (2006).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Hints from the 2003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HI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147-156. <http://dx.doi.org/10.1080/10810730600637574>
- Talosi-Garcia, M., & Davis, S. W. (2005).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minority breast cancer pati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0*(S1), 53-64. <http://dx.doi.org/10.1080/10810730500263638>
- Turk-Charles, S., Meyerowitz, B. E., & Gatz, M. (1997). Age differences in information-seeking among cancer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5*(2), 85-98.
- Umberson, D. (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s: Social control as a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306-319.
- Vanderpool, R. C., & Coyne, C. A. (2006). Qualitative assessment of local distribution of screen for life mass media materials in Appalachia. *Preventing Chronic Disease, 3*, A54.
- Vivian, J. (2002). *The media of mass communication*. Boston, MA: Allyn & Bacon.